

대광맹인불자회 법인화 추진

재활교육·장애인 안마사업장 등 사업안 마련

“모든 장애인 불자들이 부처님 품에서 깨어나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이재달)가 법인 설립을 추진하며 제2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1992년 창립 이후 꾸준한 활동으로 불심을 다져 온 대광맹인불자회는 ‘부처님 품에서 재활의지와 용기를 얻었으면 부처님의 세상을 실제 삶에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 걸고 올 해부터 보다 폭넓은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활교육사업과 장애인안마사업장 마련 등 구체적인 사업

안을 내놓고 있다. 법인설립은 맹인불자회의 도약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토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40명 남짓되는 법당 하나밖에 없는 상황. 주변에서는 장애인들만의 힘으로 무모한 꿈이라고 치부해버리기도 하지만 회원들은 시각장애를 딛고 맨손으로 법당을 일궈온 14년 동안 무한한 가능성을 수없이 느끼고 체험했기에 누구보다 자신에 차 있다.

무일푼에서 푼푼히 돈을 모아 5년 만에 대광맹인불자회를 창립하고 법당을 만든 이들이었다. 처음 16명의 회원이 160여명으로 늘었다. 1992년부터 시행한

‘시각장애인 갖바위 등반대회’는 매년 전국의 시각장애인 200여명이 참가해 용기를 얻는 대구모험사로 발전했다.

또 장애인으로서 도움만 구하지 않고 먼저 돕겠다고 나선 안마봉사활동은 장애인들과 사회에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93년 청송강호초 안마봉사를 갔을 때는 수많은 재소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기도 했다.

대광맹인불자회는 이제 부처님의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원력을 세우고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고 있다. 지난 1년간 여러 법인체를 방문해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구비서류 등 제반여건을 배

우고 갖춰야 할 구비서류도 모두 준비한 상태. 이사진단 확정되면 2월 중 종교 법인체로 등록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법당을 100평 이상 규모로 확장 이전 하기 위한 원력도 세웠다.

그러나 불사금 마련이 숙제다. 불사금 마련을 위한 일일차집, 바자회도 개최하고, 스님들의 서예작품전시회와 각종 공연 등도 구상중이다. 일단 법인화작업이 마무리되면 후회회 구성도 활성화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이정립 사무국장은 “장애인불자들이 부처님 품 안에서 새롭게 꽃 피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053) 256-0114

배지선 기자 jsum@buddhapia.com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세

하재웅

대구 구도회 회장



1월 23일 오후 3시, 대구 남구 대광 등 구도회 법당에서 홀로 자리를 지키며 바쁘게 움직이는 이가 있다. 자그마한 사무실 방에서 전기 난로 하나로 추위를 쫓으며 컴퓨터 앞에 몰두해 있는 하재웅(66세) 회장이다.

“열면 미결이고 떠면 완결입니다.” 하던 일을 덮으며 슬쩍 던진 한 마디에서 지혜와 깊이가 묻어난다. 하 회장은 1982년 이기영 박사의 강의를 듣고 ‘고기가 물을 만난 듯’한 충만감을 느껴 평생 구도회에서 신생활을 해 왔다. “안동사범학교 시절에는 불교학생회를 창립하기도 했지만 이기영 박사의 강의는 불교가 현대적 학문으로 정면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회고다.

하 회장은 초등학교 교사로 공직생

부처님의 가르침인 연기법으로 늙어 내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주변에 감동을 주었다. 그만큼 공부도 깊고 집착 없는 삶에 적응이 됐다는 것일 터이다.

“아들이 나에게 진 빚이 많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 옆에서 이것저것 해달라며 귀찮게 했을 텐데 말입니다.”

아들이 떠난 아픔을 제3자의 입장에서 담담히 정리해 나간 하 회장은 하나의 아픔을 잃었지만 세 아들(아들 친구 둘이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떠난 아픔을 사이는 과정에서 인연을 맺게 된 사미 스님을 아들로 삼게 됐다)을 얻었다. 또, 기독교인이었던 부인이 독실한 불자로 개종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이 곧 기도가 돼야 한다’는

이기영 박사 강의 듣고 발심 ‘구도회’서 신형 10년간 회장직 맡으며 지역 단체 활성화 앞장

활을 하면서 구도회에서 청년회 총무, 일반회 총무를 거쳐 대구구도회 회장만 10년을 맡아왔다. 특히 몇 해 전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다가 불사관 설을 앞두고 군위군 7개면과 읍의 특근노인 25명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각 면단위 소방파출소에 위문품을 전달했다(사진). 라면, 떡국, 강정, 밀가루, 식용유 등 모두 2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지원됐다.

하 회장은 2004년부터 활동을 대구불교계로 확대해 나갔다. 대구신행 단체인연합회장으로서 지역 신행단체의 발전에 힘을 쏟기 시작한 것. 하 회장은 지역교계에서 존경받던 재가 불자로 단연 꼽힌다.

교계에서 활동하던 청년 불자가 주례를 부탁할 정도다. 지난해 연말에는 동화사로부터 포교대상까지 수상했다.

하 회장은 지극히 부드럽고 편안한 사람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 웬만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다.

60을 훌쩍 넘기는 세월 속에서 하 회장은 1996년 단 하나뿐인 아들을 뱃살 병으로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제3자는 모른다. 태산보다 큰 아픔이 한시도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아픔마저

생각으로 하무하루를 산다는 하 회장. 그는 불교계가 응집력이 부족한 것을 아쉬움으로 꼽는다. 재가 출가 승단을 막론하고 순수한 불교인으로 행동해야한다는 것이 하 회장의 지론이다. 지역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 재가불자의 참여가 넓어져야 하며, 스님들이 수행정진에만 몰두할 수 있는 승가노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소신도 피력했다.

배지선 기자

개 불교합창단이 음성교양을 통한 포교활동에 나서고 있다. 배지선 기자

독거노인들에 생필품 전달



군위사원연합회와 군위불교대학, 군위 불교신행단체인 봉사단, 합창단, 산행단이 앞두고 군위군 7개면과 읍의 특근노인 25명에게 생필품을 나눠주고 각 면단위 소방파출소에 위문품을 전달했다(사진). 라면, 떡국, 강정, 밀가루, 식용유 등 모두 200여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지원됐다.

배지선 기자

외국인근로자 위한 눈썰매축제



외국인근로자 상담지원센터인 관오사 부설 마하루다 대구 보현의 집대표 지도이 대구 우방랜드의 협찬을 받아 1월 22일 대구 우방랜드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눈썰매축제를 개최했다. 축제에 참석한 대구지역 외국인 근로자 50여명은 난생 처음 타보는 눈썰매의 재미에 푹 빠졌다(사진).

배지선 기자

일연스님 탄신 800주년 국제학술대회

7월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서

일연선사 탄신 80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7월 20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위 인강사와 일연학연구원은 1월 24일 대구에서 회의를 갖고 일연선사 탄신 800돌을 기념하는 일연삼국유사대제전의 일환으로 국내외 20여명의 학자들이 발표자로 참가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제학술대회는 삼국유사를 문학과 역

사학 민속학 불교학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독일과 호주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 최대한 많은 나라에서 한국고대사와 불교사 등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초청해 그들이 보고 있는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그러나 북한의 학자 초청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인강사 주지 상인 스님과 경북대 사학과 주보돈 교수, 상주대학교 한기문 박물관장 동국대사학과 김상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소속 중증장애인들에게는 경주시여성의용 소방대 회원들이 가정을 방문해 위로금을 전달해 더욱 따뜻한 시간이 됐다.

배지선 기자

동화사 지성 스님 총재 위촉 대구경북불교합창단연합회

대구경북불교 합창단연합회는 1월 24일 동화사 설법전에서 개최한 제4대 회장단이 취임식에서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총재로 추대하고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대구 불교방송사장 범조, 태고종 종무부 원장 현수, 천태종 대성사 총무 보광, 대구 신원주지연합회 부회장 경희 스님, 동화사 신도회 허석구 신도회장, 대구불교음악협회 이달철 회장 등 교계 내빈과 200여명의 대구지역 교계 합창단원들이 참석해 대구경북불교합창단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화합하고 도울 것을 약속했다.

대구경북불교 합창단연합회는 동화사, 은해사, 직지사, 영남불교대학 진각종, 천태종 등 종단을 초월한 대구경북 지역 18

장애인·주민 위한 떡국잔치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풍광)은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지역장애인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 맞이 떡국잔치’를 펼쳤다.

떡국은 선봉사 갖바위 등에서 후원한 쌀로 만드었고, 복지관을 찾아오지 못하는 저

인강사 불상 봉안 발원문 발견

국위 인강사 극락전 불상에 봉안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발원문이 최근 발견됐다.

경주 동국대 황상주 교수가 인사동에서 접하게 된 발원문에서 ‘인우 인강사(인강사에 봉안한다)’란 글귀를 확인한 후 인강사로 연락해 확보한 것이다.

인강사(주지 상인)는 2004년 5월 극락전 해체복원을 위해 아미타불 복장을 개봉했을 때 아무런 유물도 나오지 않았던 점을 미뤄 도난당한 복장 유물일 것으로 보고있다. 발원문에는 강희 27년(1688)이란 연대와 발원내용, 시주자 이름 등이 쓰여 있다.

인강사는 17세기에 봉안했다는 명문이 기록된 발원문을 발견함에 따라 아직 정확한 조성연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인강사 극락전과 아미타불 복상의 조성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고 관계당국과 문화재 지정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한국불교문화 콘텐츠연구소 설립 예정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 설립을 위한 제1회 세미나가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은해사에서 열렸다.

‘한국기층문화로서의 불교문화와 문화콘텐츠 개발 가능성 탐색’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은해사 주지 범타 스님의 ‘민족통합이념으로서의 불교와 한국문화’ 국사편찬위원회 김근태 연구위원의 ‘불교문화콘텐츠 개발현

황과 미래’ 명지대 문화콘텐츠 연구소 최경국 소장의 ‘일본 불화 속에 나타난 힘의 표현’ 등이 발표됐다.

한국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 설립을 위해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몇 차례 모임을 가졌던 이들은 세미나를 통해 연구소 개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정식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병술년 불기255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불교 관음종

종정 남천 죽산

사서실장 이효천

총무원장 이흥파

부원장 항법명

총무부장 김대홍	종회의장 정법륜
총무국장 신성법	부의장 김경철
재무부장 박지열	호법원장 김경철
재무국장 박지성	교육원장 김동령
감찰부장 이의선	수교부장 이효천
교무부장 권종일	수교국장 최법주
교무국장 신도중	포교원장 김지섭
사회부장 조법호	포교부장 황혜광
사회국장 이도각	포교국장 김법경
감찰국장 임현묵	

원력을 창출하는 종단! 깨어있는 종단!

(재)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일동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178-3 ☎ 02)763-0054, 3345 / 팩스 02)763-5851
www.kwanum.or.kr

丙戌年 새해 2천만 불자가정에 날마다 좋은날 되소서

본회는 대한불교 중흥협회의 각 중흥예하님의 助言과 기존 佛敎宗團振興會員任의 一致團結로 舉國的 佛敎中興을 위해 乙酉年 庚辰月에 새로 태어난 組織團體로 명실공일 중흥제도에 앞장 설 것입니다.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한국불교정도종 회암 총무원장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간사위원장 대한불교 천지종 총무원장 대명
고 문	대한불교 현수종 총무원장 무송	선관위원장 세계불교 미륵대종 총무원장 법홍
고 문	대한불교 불이종 총회의장 예원	이 사
총 회	대한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은산	이 사
부 회	대한불교 임제선학원 총무총리 마정	이 사
부 회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강	이 사
부 회	대한불교 수산문 조동정종 총무원장 정림	이 사
부 회	대한불교 불이종 총무원장 지암	이 사
감사위원장	한국불교 원각종 총무원장 법인	이 사
종무위원장	세계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법성	이 사
포교위원장	국제불교 선덕종 총무원장 법성	이 사
문화위원장	세계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법운	이 사
조직위원장	대한불교 선화종 총무원장 법천	이 사
복지위원장	한국전통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대합	이 사
의전위원장	대한불교 삼계종 총무원장 일처	이 사
사정위원장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총회의장 구화	이 사
호법위원장	한국불교 원각종 총회의장 덕진	이 사

사무총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가종 총무원장 법봉

◆ 본회 :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0 학산건물 전화 02)3436-0797 / 팩스 02)2201-0796
◆ 행정사무처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 667-1 전화 051)335-2210 / 팩스 051)331-6210

각종 통증/난치병
양심명의 3대비법 요/배개

원인모를 오랜통증 주무시 면서편 안하게 치료완

증상 치료가 아닌 병근을 송두리째 뿌리 뽑는 1:1 완전 맞춤 치료

양심적 전문의들이 만듭니다
유비 닥터스 02)782-0022